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9월 22일(금)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9.22)**

**- 중점 인프라 협력국인 이라크와 건설, 인프라, 에너지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22(금)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한-이라크 정상회담은 수다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이라크의 지원과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